

그리스도인의 절망과 소망

성경말씀: 애3:19-41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쁨과 슬픔이 교차 되는 삶을 산다. 토저의 말, 가장 비관적, 낙관적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일제 강점기, 6.25전쟁, 피난, 보릿고개, 이제 살만 한 시점, 이 정도면 OK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 속에 지낸 사람, 예레미야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만 대언함, 일가친척의 배반, 주변 사람들의 조롱, 왕이 죽이려 함, 지하감옥 대언의 메시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개인이 바로 서야 한다.

유다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성전/제사장/종교 시스템을 의지하고 회개 거부, 극소수만 믿음 가짐 드디어 시드기야 왕 당시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를 정복, 예루살렘 멸절

성전 파괴, 좋은 사람들 포로, 예루살렘의 귀한 아이들이 굶어 죽고 부모의 음식이 됨(애4:4: 10).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들이 시드기야 왕의 눈들을 빼는 것을 목격함(렘52:11)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런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애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대언자의 비통함 심정을 그린 노래 혹은 시

뼈아픈 고난 속에서 비통한 애가를 지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두라고 호소한다. 어르신들: 인생의 여정 되돌아보고,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난관 속에서 소망을 갖도록 이 설교 준비

1. 좋은 일을 추구해도 고통이 임할 수 있다는 것 명심, 2. 그럼에도 소망이 있음 명심

예레미야의 고난

1절: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인한 고난 체험, 3절: 하나님이 주의 종을 직접 치심, 4절: 육신의 고난

8절 기도 무효, 12-13절: 영혼의 쓰라린 고통, 나라가 패망하여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을 보는 심정

14절: 백성의 조롱, 17절: 평강이 없다, 18절: 절망 상태(소망이 사라졌다)

요즘 이 나라를 보며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교회와 목사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는가?

신천지 등의 이단들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심각한 교리의 부패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대로 바로 하자고 이 교회로 모였다. “바른 성경으로 성경대로 하자.”

마귀의 꾀박, 우리를 꾀박하는 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시간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백성을 향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국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억해야 한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모두 먹고 살만 할 때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역사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 나 잘나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내 아이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까 봐 나는 매일 염려하고 기도한다.

‘주일예 교회 오는 것을 장식품을 생각하지 말라.’ ‘와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빠져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교만이고 방종이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이려는가?

이 어려운 시점에 국가의 안위, 교회의 무기력과 무능을 두고 같이 고통받고 기도해야 한다.

예레미야의 소망

1. 소망을 잃은 상태에서 그는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며(19) 겸손하게 되었다(20).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파워,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 내 자신을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불평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

2. 그러자 그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다(21). 18절 비교

지난 25년 동안 바른 성경을 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바른 교회: 친구들이 떠나고 홀로 남게 됨 몇 년 동안 교회에 가지 못한 적도 있다. 교회를 하다가 망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주에도 수십 시간 성경 교정: 지루하다.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이라 100%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린다. 주님의 때에 부흥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동참, 맑은 정신,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교회, 바른 교육, 바른 사회, 바른 국가,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았다.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대하셨는가?”

1. 아직 모든 것이 소멸되지는 않았다(22).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새로운 각오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렘25:11). 자신의 예언 기억

2. 그 이유:

a. 그분의 긍휼(Mercy), 마땅히 받을 형벌을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들,

b.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22). compassion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 국가가 어떻게 존재했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다(히4:15-16).

c. 그런데 그분의 긍휼과 동정심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새롭다(23). 할렐루야!

d. 그 이유: 하나님의 신실하심, 불변하면서 꾸준하시다. 아침의 해, 저녁의 달과 별

e.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 동정심

어려울 때 취해야 하는 태도

1.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26).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처음에 캐나다 유학갈 때, 무일푼, 장학금, 비자 등이 안 나와 낙심하고 위염, 무기력, 그런데 갑자기 개학 일주일 전에 비자

2. 특히 젊을 때의 고통은 약이 된다(27).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28). 이찬희 형제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대표적인 인물: 다윗

3. 하나님의 약속(31). 불쌍히 여긴다(32). 고의로 슬프게 하지 않는다(33).

4.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34-36). 사람이 아무리 쓰러뜨리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지난 1년 반 이상 어려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하신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 다윗의 기도 시편 17편, 1-2절, 5절, 8-9절, 13절, 15절

5. 화와 복이 하나님에게서 난다(38).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하신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40-41)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오래 참을 기다리라는 증거,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

이 나라, 교회의 상태를 바라보자. 이 참담한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의 책임이다. 죄들의 회개

1. 왜 믿는가? 샴니즘 번영 신학

2. 누구를 믿는가? 성경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분을 아는가? I am that I am.

3. 그 결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르게 믿는가? 악한 이단들 횡행하는 이유: 바른 교리의 부재

4. 그 결과 바르게 사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는가? 교회에 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가?

결론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이 닥친다. 믿는 사람도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한다. 소망을 잃는다.

이때 기억해야 한다. 1.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2.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주님의 긍휼, 동정심, 신실하심을 믿는가?

모든 것을 내어 놓고 기다려야 한다. 혹시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기다려야 한다.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세운 나라이고 교회인가? 주님의 긍휼, 동정심, 신실하심